

생명·명상·치유의 땅, 오대산 세상을 품다

제12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10월 9일~18일 개최

단풍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생명과 명상, 치유를 주제로 한 문화축전이 불교성지인 오대산 일대에서 성대히 펼쳐진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는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오대산 월정사 일원에서 오대산 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오대산 문화축전은 '오대, 세상을 품다'를 주제로 불교 및 지역문화, 체험행사 등이 마련된다.

문화축전은 10월 9일 오후 2시 부처님 사리 이운식 및 수륙대제를 시작으로 오후 6시 월정사 특설무대에서의 개막축하공연 '오대, 세상을 품다'를 주제로 불교 및 지역문화, 체험행사 등이 마련된다.

10월 10일 오전 12시에는 의궤 및 실록 이운식 및 고유재가 진부 중앙로에서 펼쳐진다. 월정사는 현재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원소장처 환수를 추진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오후 2시 오대산 지장암에서 특별한 인형극인 '다람쥐 제사'가 펼쳐진다. '다람쥐 제사'는 이번 오대산 문화축전을 맞아 준비한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다. 오대산 지장암에는 한 스님이 겨울철 땅에 묻힌 도토리야와 알밤을 꺼내 먹은 뒤 이튿날 겨울 양식을 뺏긴 다람쥐가 새끼를 데리고 나와 그 스님의 고무신짝을 물고

죽은 일하다. 지장암은 그 이후 다람쥐 49재를 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축전기간 오후 3시에는 산사 음악회가 시리즈로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명상음악을 접할 수 있다.

10일에는 전통타기 명상음악 피스피즈, 수피댄스 등이 펼쳐지며 11일에는 클래식 협주, 12일에는 어린이 오케스트라, 13일에는 국악 한마당, 14일 연희마당극

10일 실록·의궤 이운식 열려

스토리텔링 '다람쥐 제사' 눈길

타기·몽골·인도 명상음악 선봬

해랑의 호랑이날다. 15일 클래식 협주, 17일 몽골·인도 명상음악, 18일 이박사와 윈디시티 음악회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10월 오후 6시 30분에는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을 중심으로 민속의식인 월정사 탑돌이가 펼쳐지며 11일 오전 11시 한강시원제 및 공연, 13일 오전 12시 초중고 동아리 공연, 14일 지역문화인공연, 15일 12시 어린이 찬불가 경연



대회, 18일 전국차인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특별행사로 16일 오후 6시 월정사 특별무대에는 시인 말로, 전제명, 김창근, 전동근, 손택수, 이홍범, 소설가 김도연, 조정래, 김초혜 씨 등이 참여하는 오대산 책임있는밤 북콘서트가 열린다.

또 불교전통을 알리기 위해 17일 오전 12시 전통불교 사물·법고시연과 오후 1시 제3회 전국승가학인 법고대회 등도 펼쳐진다.

이번 오대산 문화축전은 국내외 초청인

사, 관광객, 신도,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우 등 15만 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정사 측은 "오대산문화축전이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을 대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킬 것"이라며 "또한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공연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 및 경제에 이바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남아, 그 강을...' 진모영 감독, 청소년 특강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명사와의 만남' 9월 12일 열려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이 9월 12일 진모영 감독을 초청해 명사와의 만남을 진행했다. <사진>

생명평화센터에서 열린 이날 명사와의 만남은 독립영화로 480만 관객을 동원한 '남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영화 시청 후 청소년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MBN'과 독립PD에 대한 이야기, 불교와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와 차기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진모영 감독은 "MBN'은 갑의 위치에 있는 정규직 PD가 을의 위치에 있는 독립PD를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한 사건"이라며 "방송사는 사과도 없이 조사나 재발방지책도 전무한 상황으로 재발방지책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모여 추진하고 있는 법이 'MBN법'이라고 설명했다.

진모영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건 사랑뿐"이라며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작은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다인(전북여고 1학년)학생은 "영화나 방송에 관심이 있어 진료를 고민 중이었는데 오늘 만남을 통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독님이 말씀하신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독립PD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남도 사찰음식 강좌 개최

남도 사찰음식의 참맛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됐다. 전남 구례에 위치한 지리산 화엄사(주지 영관) 성보박물관은 9월 15일 '제2기 화엄사 박물관학교 산사의 밥상' 개강식을 개최했다.

화엄사에서 공양주 10년간 대중공양을 전담한 마하연 보살이 강사로 나선 이번 강좌는 사찰음식 기초부터 사찰음식 전반에 걸친 내용이 교육된다. 11월 24일까지 전체 10주 강의로 매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진행되는 강좌에는 통가지구이, 연근새싹 샐러드, 산사의열무김치, 우영구이, 오이

장아찌, 버섯모듬편, 호박고구마탕, 양배추물김치, 연근대추물조림, 덕덕단호박소스, 툇나물조림, 깻잎조림, 깻잎두부말이, 양념깻잎김치, 포고버섯죽, 버섯탕수채, 두부선, 아재김말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8주차에는 특별강사로 성환 스님이 나서 감자오이국, 참외사과무침, 된장고추장쌈 등 조리법을 강의한다.

마하연 보살은 "사찰음식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강의를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소원바위 동전모아 자비의 연탄을...

마이산 탐사, 9월 14일 독거노인 13가구에 4,030장 전달

진안 마이산 탐사(주지 진성)가 환절기를 맞아 난방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을 전달했다. <사진>

마이산 탐사는 9월 14일 진안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릴레이 연탄 나눔 행사에 동참해 진안군 마령면 일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13가구에 연탄 4,030장을 전달했다.

진성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정혜 스님, 홍보국장 장승 스님, 진안 광명사 승운 스님을 비롯해 나누리 봉사단과 진안군 어린이 봉사단 '이쁜 손 이쁜 마음', 전주 분원 실상사 나누리 봉사단 30여 명이 릴레이 연탄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탐사는 이 동전을 모아 연탄구입자금을 마련하고 나누리 봉사단 등과 함께 직접 가구마다 직접 전달해 더욱 자비실천의 의의를 더했다.

진성 스님은 "산간지역인 진안은 평지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오고 일교차가 매우 크다"며 "가을이면 난방비를 마련하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이 감기로 고생을 하



는 것을 감안해 예년보다 일찍 연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마이산 탐사를 찾은 참배객들의 작은 동전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탐사를 찾은 모든 분의 마음이 추운 겨울 홀로 지낼 어르신에게 전달될 것 같아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탐사는 지난 9월 10일에도 지역의 홀몸 어르신 100분을 초청해 생일잔치를 열었다. 매년 봄과 가을에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10월 중에는 김장김치와 자비의 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대 통합위한 가을 정취 한마당"

'가을이 오는 소리' 9월 12일 심곡사 떡볶음악회 개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익산 미륵산 심곡사에서 '가을이 오는 소리'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사진>

익산 심곡사는 9월 12일 경내 떡볶이 공연장에서 '심명나는 산사 콘서트' 주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전통 춤과 민요, 판소리의 국악공연과 대중가요, 합창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 두루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진 심곡사 음악회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심곡사 한주 화평 스님, 금산사 표교국장 지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지역주민 10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개그맨 박범수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떡볶이음악회는 전통무용과 가야금 병창, 해금 연주, 남도민요의 신진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남도명창 임화영과 소리꾼 송세운의 심정가와 퓨전국악 공연팀 아리아 공연이 펼쳐져 심명나는 우리가락의 세계에 빠져들게 했다.

90년대 인기가수 심신과 트로트 가수 김유미, 최서희가 출연한 대중가요 공연



은 출연자와 관객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화평 스님은 "떡볶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국창의 반열에 오른 정정렬 명창을 기리는 떡볶이공연장에서 산사의 가을 정취에 취해 몸과 마음이 힐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우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심곡사 칠층석탑에서 다량의 보물급 문화재가 발굴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며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심곡사 음악회는 또하나의 무형문화를 창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외국인복지단체, 캄보디아 추석행사

광주지역 불교계 외국인단체인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추석을 맞아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 <사진>

지난 20일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에 위치한 옥동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추석행사는 캄보디아를 프츨뵐(추석) 행사로 광주 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 캄보디아공동체 회장 스나를 비롯해 캄보디아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행사는 캄보디아 불교의식, 전통음식, 전통춤, 캄보디아 패션쇼와 전통놀이 등이 진행됐다. 이어 한국 공연으로는 불자예술공연단이 출연하여 난타와 벨리댄스, 부채춤 함께 추석맞이 한마당이 펼쳐졌다.

현재 광주지역 캄보디아공동체는 광주외국인복지센터를 주축으로 운영되며, 매



년 4월과 10월에 축제를 진행한다. 9월에 시작된 프츨뵐(추석)축제는 캄보디아 전통춤로서 광주, 전남 캄보디아근로자들이 서로 상호간에 문화 교류를 통해 목적으로 열렸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는 이번 행사와 별도로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 기업들과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한국어 공부와 사업장 관련법을 교육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산소제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기ban

나만의 힐링세계 기ban

기ban 힐링 신장과 명상, 건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기ban

상용할때까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기ban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이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용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6 [☎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